

발 기 인 총 회 의 사 록

2018. 8. 8. 11:00 주식회사 대한제22호평택고평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창립 사무소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다.

발기인 총 수	1 명	이의 인수주식총수	60,000 주
출석발기인수	1 명	이의 인수주식수	60,000 주

발기인 대표 두리산업개발 주식회사 사내이사 김수정은 발기인 전원이 상법 363조의 소정 소집절차의 단축 또는 생략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발기인이 출석하여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회의 진행상의 의장을 선임할 것을 구한바 발기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발기인 대표를 의장으로 선임하였고 동인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.

제1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

의장은 별지 정관을 낭독하고 축조설명을 하고 그 여부를 물은 즉, 전원일치로 안대로 승인하다.

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

의장은 이사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고자 전원 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한 즉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.

사내이사 전 태 경

위 피선거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.

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

의장은 감사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고자 전원 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한 즉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.

(단, 감사의 선임에는 상법 제4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)

감 사 최 준 영

위 피선거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.

제5호 의안 이사보수 결정의 건

의장은 정관 제39조 규정에 의거 이사의 보수를 회사형편상 무보수로 책정함을 설명하고 그 승인을 구한바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다.

제6호 의안 감사보수 결정의 건

의장은 정관 제39조 규정에 의거 감사의 보수를 최초 사업년도에는 월30만원으로 책정함을 설명하고 그 승인을 구한바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다.

제7호 의안 본점설치장소 결정의 건

의장은 정관에 본점을 서울특별시내에 둔다고만 정해져 있으므로 설치장소를 결정하자는 취지를 말한바 전원일치로써 다음과 같이 본점 설치장소를 결정하다.

본 점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(삼성동, 아셈타워)

제8호 의안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

의장은 발기인이었던 자를 제외한 이사 전태경, 감사 최준영으로 하여금 상법 제 298조 소정사항을 조사보고케 하기 위하여 휴회한다고 선언한 다음 잠시 후 속회를 선언하다.

발기인이 아닌 이사, 감사는 별지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서와 같이 조사 사항을 소상히 설명 보고한 바, 전원 일치로 이를 승인하다.

의장은 이상으로써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.

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

출석한 발기인이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다.

2018. 8. 8.

주식회사 대한제22호평택고평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발기인 두리산업개발 주식회사 (131311-0083257)
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210-5 2층(통복동)
 사내이사 김 수 정

